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1~39

# 브라질 실용 포어에 미친 아프리카어의 어휘적 영향*

김 한 철**
(Kim, Han-Chul)

〈Abstract〉

## A Influência de Vocabulários de Origem Africana em Uso no Português Brasileiro

O presente estudo tem como objetivo principal analisar a influência de vocabulários de origem africana em uso no português brasileiro(PB). A fim disso, observamos os tipos e as características das línguas africanas. E ainda, para compreender a situação atual de uso desses termos no Brasil, apresentamos um panorama do registro dos vocábulos de origem africana no PB, e organizamos os vocabulários em três categorias, especialmente, nos registros dos séculos XIX e XX. Em primeiro, a categoria 1 pode ser usada em qualquer interação social, contrastando com as outras duas categorias. Em segundo, a categoria 2 é constuída de termos informais, de uso coloquial que, eventualmente, dependendo da situação, são substituídos por outras. Por último, a categoria 3 é de termos marcadamente informais, de uso restrito. Através disso,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551-A00046)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브라질)어과
E-mail: beto1717@hufs.ac.kr

comparamos os registros anteriores com os dados obtidos da nossa pesquisa. Com os resultados, podemos reconhecer a estabilidade e o dinamismo do uso desses termos hoje no PB.

[Key Words: Português Brasileiro/ Línguas Africanas/ Vocabulários/ Estabilidade/ Dinamismo]
[주제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아프리카어/ 어휘/ 안정성/ 역동성]

## Ⅰ. 들어가는 말

브라질 포르투갈어(포어)는 1538년에서 1855년까지 300여 년 동안 1,800만 명의 흑인노예들이 수입되어 백인들과 항상 접촉하고 교류했기에 아프리카어의 영향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 브라질에서 온 흑인들은 두 문화, 즉 반투문화(Cultura Banto)와 수단문화(Cultura Sudanesa)를 통합하였다. 전자는 앙골라, 모잠비크, 콩고 등의 나라에 근거한 문화로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ão Paulo),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마라녕(Maranhão), 뻬르남부꾸(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주에 정착하였으며, 후자는 수단, 세네갈, 기니, 나이지리아 등에 근거한 문화로 반투족 보다 적은 수로 약 200년이 지난 후에야 주로 바이아(Bahia) 주에 정착하였다.

아프리카어의 브라질 포어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특히 Silva Neto(1950), Melo(1981), Elia(1979)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프리카어의 영향을 축소하고 크레올화(creolization)[1]에 대한 논쟁을 본격화하였다. 다양

1) 언어가 크레올화 되기까지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사람들이 교역 등의 접촉을

한 논의 가운데 Castro(1980)에 의하면, 식민지 시대 브라질 인구엔 아프리카어를 모국어로 하는 흑인 아프리카인들이 굳건히 존재하였음에 근거하여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영향이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브라질 포어에 형성에 있어 아프리카어의 영향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그것을 크레올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브라질 포어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나타난 크레올과 비교해 볼 때 민감하게 형성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의 연구에서 미국 학자인 Gregory Guy와 John Holm은 브라질 포어의 크레올화 가설에 대한 논의를 부활시켰다. Guy(1989)는 변이이론의 테두리에서 표준 포어와 브라질의 대중포어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차이점은 자연적인 언어의 진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흔적을 남긴 크레올화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olm(1987)은 이베리아반도 기원의 다른 크레올과의 비교자료 분석을 통해 브라질 포어를 반크레올로 간주하고 있다. Holm(1994, 51-59)은 관용표현에 있어 브라질에서 교육을 거의 못 받은

---

가질 때 화자와 청자의 언어가 서로 다르면 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두 언어의 어휘를 혼용하여 간단한 문장구조에 맞춰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간이 의사소통용으로서 편의적이고 임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언어를 피진(pidgin)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어접촉 상황에 있는 양언어(bilingual), 혹은 다언어(multilingual)사용 환경에서 그 사회의 거의 유일한 의사소통수단이 된다. 대부분 상층언어가 피진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언어이며 사용자는 주로 기층언어의 화자가 되는 구어(spoken language)이며, 일종의 접촉어(contact language)일 뿐 화자에게도 청자에게도 모국어가 아니다. 이런 피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제2세대를 형성하는 경우 그들은 이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크레올(creole)이라고 한다. 피진이 크레올이 되면 어휘가 복잡해짐은 물론 음운이나 형태, 통사규칙 등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장되어 더 이상 구어가 아니라 문어적 특성을 갖추게 된다. 즉 크레올화(creolization)의 과정은 피진화된 언어의 구조와 어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형성된 크레올화된 언어(creolized language)는 형식이나 기능의 복잡성에 있어서 여타의 언어와 대등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하층민이 사용하는 포어와 아프리카어 및 크레올을 비교한 결과, 브라질 하층민 포어는 곧 크레올과 크레올이 아닌 언어 간의 오랜 접촉으로부터 기인한 일종의 반크레올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므로, 브라질 하층민 포어와 아프리카어 간에는 일종의 유사함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학자들의 연구내용과 주장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브라질 포어가 크레올화된 것이든 아니면 반크레올이든 아프리카어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현재 브라질에서 쓰이는 어휘 영역에서 아프리카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브라질의 문화적 요소의 이해는 물론 실용 포어의 학습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뿌리 깊게 유지되어 온 브라질 포어와 아프리카어 간의 상관관계를 조명해보는 목적으로 아프리카어가 브라질 실용 포어의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광범위한 아프리카 관련 논의 중에서도 본 연구는 현재 브라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어에 미친 아프리카어 기원의 어휘와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관찰하고자 한다.

첫째, 19세기와 20세기(20세기 상반기의 고전연구에 집중)에 나타난 기록 조사를 통하여 19세기와 20세기 브라질 포어에 나타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현재 브라질에서 흑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바이아(Bahia)주의 아프리카어 방언과 관련하여 가장 조직적인 조사로 평가받는 Castro(2001)의 자료를 토대로 사회언어학적인 면을 고려한 세 가지 부류로 어휘를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19세기 자료인 Macedo Soares(1954[1888])와

Beaurepaire-Rohan(1956[1889]), 그리고 20세기 자료인 Mendonça(1936) 및 Raimundo(1933)의 자료와 비교하여 역사적인 부분의 관찰은 물론 이들 어휘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관찰하여 오늘날 해당 어휘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브라질 포어에 나타난 아프리카어의 어휘 기록은 어떠한가?
2. 아프리카어 어휘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어의 부류는 어떠한가?
   2.1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대중적인 어휘 부류
   2.2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어휘로 대중적인 동의어가 존재하는 부류
   2.3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어휘 부류
3. 각 부류의 어휘 특징으로 본 아프리카어의 어휘적 영향은 어떠한가?

## Ⅱ. 브라질 포어에 나타난 아프리카어의 어휘 기록

기존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첫 포르투갈어 사전에도 아프리카 어휘가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Bonvini(2002)에 따르면, '포르투갈어와 라틴어 어휘(Vocabulario portuguez e latino)'의 저자 Bluteau(1772)와 'Rafael Bluteau 신부에 의해 개정되고 첨가된 포르투갈어 사전(Dicionario da lingua Portuguesa composto pelo padre Rafael Bluteau, reformado, e acrescentado)'의 저자 Moraes e Silva(1789)에 의해 cacimba, mucama, moleque, cafuné, mandinqueiro와 같은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가 이미 사전에 등장하였다.

## 1. 19세기 브라질 포어에서 나타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 기록

1822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19세기는 브라질 포어에 대한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into(1981)에 의하면, 1826년 브라질 포어에 대한 첫 성찰이라 여겨지는 Pedra Branca의 글이 발표된다. 그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어와 포르투갈에서 사용되는 포어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어휘이다. 우선 Pedra Branca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 예를 들어 chacota, 포르투갈에서의 뜻은 '음란한 노래'이며, 브라질에서는 '놀리다'라는 뜻으로 사용- 8개의 목록을 발표했다. 또 다른 목록에는 브라질에서 사용되나 포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단어 49개를 발표했다. 이 49개의 단어 중, 16개가 아프리카 단어였음을 다음 목록을 통해 볼 수 있다: quindim, quitute, batuque, cochilar, xingar, muxingueiro, caçula, fuxicar, mocotó, mungangas, muxoxo, mulambo, mandinga, muxiba, quitanda, senzala.

Pedra Branca의 문헌 이후, 19세기동안 브라질레이리즘(brasileirismo), 즉 포르투갈의 포어와 차별되는 브라질식 포어에 대해 작가 및 언어학자들 사이엔 끊임없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역사학자 Varnhagem은 브라질 민족의 특징은 유럽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성원이라고 주장하였고, João Francisco Lisboa는 1854년에 이 주장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alomé Queiroga, 또는 José de Alencar와 같은 작가들은 포르투갈의 영향에서 벗어난 브라질만의 특성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Pinto 1981, 29).

Salomé Queiroga는 "브라질의 언어가 강하면서도 동시에 맛깔스럽다. 투명하고 다채로우며, 개성 있으며, 흥미롭다. 포어임에도 불구하고 각 단어를 살피면 분두-과라니 등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라틴어, 분두

-과라니 등의 어원이 투명한 바다의 진주와 같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인다(...) 안 그래도 풍부한 포어가 여기 브라질에서는, 새로운 아프리카와 과라니 어휘가 더해져, 보다 풍부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로 재탄생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Pinto 1981, 163). 한편 José de Alencar는 "브라질 언어의 변화를 책임지는 이들은 색슨 족에서 아프리카인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아름다운 이곳에서 인종, 전통, 언어의 어우러짐을 일궈냈다"고 하고 있다(Pinto 1981, 76).

브라질성과 관련된 논의는 19세기 동안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브라질의 문학과 정체성 및 정치 등과 관련된 연구를 다뤘지만, 어휘 분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첫 사전은 1832년 Luís Maria Silva Pinto의 '브라질어 사전(Dicionário da língua brasileira)'과 1953년도에 발간된 Braz da Costa Rubim의 '기존 포르투갈어 사전을 보완하는 브라질 어휘(Vocabulário brasileiro para servir de complemento aos dicionários da língua portuguesa)'이었다. 이 두 권의 사전은 중요한 참고사전이 되었고, 비로소 1888년에 Antônio Joaquim Macedo Soares의 '포르투갈어 브라질사전(Dicionário brasileiro da língua portuguesa)'과 1889년 Beaurepaire-Rohan의 '브라질 어휘사전(Dicionário de vocábulos brasileiros)'이 발간되었다. 이 두 저자의 작품은 당시 브라질에서 사용되던 어휘에 대한 섬세하고 자세한 목록을 남겨, 19세기 브라질에서 사용되던 아프리카와 인디오 어휘에 대한 소중한 기록으로 남았다. 결코 적지 않은 식물군, 동물군, 지리학과 관련된 어휘를 제외한다 해도 방대한 양의 아프리카 유래 어휘가 사전에 등장하고 이제 이러한 어휘들은 고어가 아니라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 되었다(Pinto 1981, 37).

1880년에는 Macedo Soares의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어에 소개된 아프리카 어원의 어휘들에 대하여(Sobre algumas palavras africanas

introduzidas no português falado no Brasil)'라는 문헌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브라질 포어에 영향을 준 아프리카 어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Biderman(2002, 70-71)에 따르면, 브라질 어휘의 집대성은 Macedo Soares에 의하여 최초로 시도되었고 그의 사전은 1888년도에 C자까지만 발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의 아들인 Julião Rangel de Macedo가 아버지의 자료를 모아 편집해 1954년(1권)과 1955년(2권)에 발간하였다. 그의 '포르투갈어 브라질 사전'이 발간되기 전에 이미 그의 저서 '브라질 방언에 대한 어휘 연구(Estudos lexicográficos do dialeto brasileiro)'가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이는 1880년에 집필되었지만, 1943년에서야 출간되었다.

1889년에는 Beaurepaire-Rohan이 '브라질 어휘사전(Dicionário de vocábulos brasileiros)'을 발간하는 데, Macedo Soares의 사전과 마찬가지로, 어휘 명단은 문법, 의미, 사용 지역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고 어원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휘만을 사전에 포함시켰다.

19세기말에는 매우 중요한 문법책 3권이 발간되었다: 1887년에 발간된 Manuel Pacheco da Silva Jr.의 '포르투갈어 문법(Gramática da língua portuguesa)'과 Alfredo Gomes의 '포르투갈어 문법(Gramática portuguesa)', Ernesto Carneiro Ribeiro에 의해 1890년에 발간된 '신 포르투갈어 문법(Nova gramática portuguesa)'이다. 여기에서도 아프리카 및 인디오 어원의 어휘 명단을 제공한다. 이들 저서는 브라질 포어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언어의 차별화를 볼 수 있는 주요요소는 시대의 흐름을 통합하여 구성한 어휘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Macedo Soares와 Beaurepaire-Rohan의 자료는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어와 포르투갈에서 사용되는 포어는 여전히 공

통적인 부분이 많지만, 포르투갈에서 사용되던 것이 브라질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브라질에서 생겨 사용되고 있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생소한 부분도 있다. 또한 브라질 포어에 나타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처럼 외부의 요인에 의해 변이된 부분은 모든 언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한다는 당연한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용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밝히면, Macedo Soares와 Beaurepaire-Rohan의 사전에서는 당시의 용어를 반영하여 킴분두어(quimbundo) 대신 분두어(bundo, bunda), 앙골라어(angolens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키콩고어(quicongo) 대신에 콩고어(congo, conguê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2. 20세기 브라질 포어에서 나타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 기록

20세기에 들어서 아프리카니즘(africanismo)은 새로운 도약을 하였다. 기록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 수가 늘어났고, 이러한 어휘들의 지역별 사용에 대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약 100여개의 아프리카 어휘가 기록되었다면, 20세기에 중반까지 300개 정도로 늘어나고 20세기 말에는 특정 사전에 기록된 어휘 수가 2000개를 넘게 된다.

브라질 포어에서 아프리카 어휘에 대한 연구를 위해 토대가 된 것은 1933년도에 발간된 두 자료이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어에 미친 아프리카의 영향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로서, Renato Mendonça의 '브라질 포어에서 아프리카의 영향(A influência africana no português do Brasil)'과 Jacques Raimundo의 '포르투갈어에서 아프로-흑인 요소(O elemento afro-negro na língua portuguesa)'이다.

Mendonça는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를 375개 기록

하고 정의, 어원, 사용되는 지역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Raimundo는 309개의 아프리카 기원 어휘에 132개의 지명을 자료에 첨가하였다. 먼저 각 어휘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내용을 보면 반투어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책의 분량 관계로 자신의 책에 이 어휘들과 파생어들을 모두 소개하지는 못했다고도 밝히고 있다. 두 저자는 17, 18세기 연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한 단어를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두 작품은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반투어와 수단어가 브라질로 이전해 오는 과정과 함께 음성적, 형태적, 구문적으로 아프리카 기원으로 고려되는 브라질 포어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이 두 저서는 브라질 포어에 미친 아프리카어 어휘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Pinto(1981)에 따르면, 20세기 전반에 발표된 연구들은 이전세기의 언어학적 접근에서 지역별 언어변이의 연구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별로 문법이나 어휘를 살폈다.

20세기 초에 이행된 지역별 연구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어휘들이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였다. Rodolfo Garcia(1943)의 '나고어 어휘(Vocabulário nagô)', Dante Laytano(1936)의 '가우슈 방언의 아프리카니즘(Os africanismos do dialeto gaúcho)', João Dornas FIlho(1942)의 '브라질 흑인의 사회적 영향(A influência social do negro brasileiro)' 그리고 Aires da Mata Machado Filho(1943)의 '미나스 제라이스의 흑인과 광산(O negro e o garimpo em Minas Gerais)' 등 대다수의 연구는 지역별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이렇듯 아프리카니즘은 항상 어원에 대한 연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Alkmin & Petter 2008, 151).

앞서 언급된 모든 연구들에서 기록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에 대한 내용은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어에 대한 연구, 특히 아프리카 어휘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방언에 대한 자료는 다루지 않고 Mendonça와 Raimundo의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였다.

## Ⅲ. 아프리카어의 어휘적 영향으로 인한 브라질 포어의 부류

본 장에서는 브라질 포어에 영향을 미친 아프리카 유래 어휘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자료는 Castro(2001)의 '바이아의 아프리카 방언(아프로-브라질 어휘)(Falares africanos na Bahia(um vocabulário afro-brasileiro)'을 바탕으로 한 Alkmim & Petter(2008)의 연구조사 자료이다.

먼저 Castro의 자료는 가장 조직적이고 완전한 브라질 내의 아프리카어 관련 자료로 평가된다. 이 자료는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다섯 단계에 따라 아프리카어의 도입을 관찰하였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2001, 80).

- 1단계: 바이아 칸돔블레의 종교언어

예: Acueto는 '동지'라는 의미로 이는 종교적인 틀에서, 동지들과 나누는 인사말이었다. 키콩고어(quicongo)[2] akweto, 킴분두어(quimbundo)[3]

2) 앙골라 북부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kikongo, congo, kongo, kikoongo, cabinda로도 알려져 있다. 고대 콩고제국의 언어였으며 다양한 방언을 가지고 있다.

3) 앙골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투어 중 하나로 수도 루안다를 포함하여 앙골라

mu-kweto에 해당한다.

- 2단계: 신도들이 사용하는 언어

예: Baculo는 '노인, 예배에서 가장 연장자'를 일컫는 말이다. 키콩고어와 킴분두어 bakulu에서 유래했다.

- 3단계: 바이아의 대중언어

예: Pongar는 '움직이는 차에서 오르다, 뛰어오르다'의 뜻이며 키콩고어 pongula에서 유래했다.

- 4단계: 바이아에서만 친숙하게 통용되는 언어

예: Baba는 '길거리 또는 해변에서의 축구경기'를 뜻하며 '경기하다, 던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키콩고어, 킴분두어 bàba에서 유래했다.

- 5단계: 브라질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예: Mocotó는 '발목, 두꺼운 다리' 혹은 '우족을 주재료로 삼은 음식'을 뜻하며 '우족'을 뜻하는 키콩고어, 킴분두어 ma-kooto에서 유래했다.

Castro(2001)는 3517개의 아프리카 유래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1322개는 반투어(키콩고어, 킴분두어, 움분두어)이고, 1299개는 아프리가 서부 지역에서 유래한다. 그 중 3개는 출처가 모호하며(반투어 혹은 아프리카 서부), 나머지는 브라질식으로 물들어 형성된 것(예를 들어 o-de-comer은 '먹을 것, 음식 따위' 등을 뜻하는데, 같은 뜻인 키콩고어, 킴분두어인 kudia를 그대로 번역하여 생긴 단어)으로 보았다.

---

북서부에서 사용되며 모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약 3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mbundu, mbundu do norte, nbundu, n'bundo, dongo, ndongo, kindongo, loanda, loande, luanda, lunda로도 알려져 있다. 식민지 시대에 브라질로 간 노예들을 통하여 포르투갈어에 많은 어휘적 영향을 미쳤다.

## 1. 아프리카 기원 어휘의 세 부류

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Alkmim & Petter(2008)에서는 3, 4, 5단계에 해당하는 단어 400개를 선정하였다. 이 자료는 살바도르,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캄피나스 등의 지역의 정보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해당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여기서 파악되고 인증을 거친 단어 목록을 바탕으로 249개의 단어로 편성된 두 번째 목록이 작성되어 첫 번째와 동일한 의도로 브라질 5개 도시에 거주하는 125명의 심사를 거쳤다: Macapá(AM): 17; Rio de Janeiro(RJ): 20; São Paulo(SP): 20; Salvador (BA): 10; Barreiras(BA): 20. 두 번째 목록에서는 지역 방언(예를 들어 바이아주에서 사용되는 Bocapiu, 짚가방); 종교단어(예를 들어 orixá, Iemanjá); 음악(berimbau, samba);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음식(vatapá, caruru); 저속한 말(수집 불가)등이 제외되었다. 두 목록을 살핀바, 56개의 단어가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 부류로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본다(표1, 2, 3 참조).

(표1) 1부류: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대중적인 어휘 부류(30개 어휘)

| | 어휘 | 현재 사용되는 의미 |
|---|---|---|
| 1 | Abadá | 카니발 때 입는 한 그룹의 유니폼 |
| 2 | Banzo | 슬픔,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향수 |
| 3 | Caçamba | 쓰레기장, 트럭 덤프스터 |
| 4 | Cachaça | 증류주 |
| 5 | Cachimbo | 담배 파이프 |
| 6 | Caçula | 막내 |
| 7 | Candango |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노동자 |
| 8 | Canga | 멍에 |
| 9 | Capanga | 핸드백, 경호원 |
| 10 | Carimbo | 도장 |
| 11 | Caxumba | 유행성 이하선염 |
| 12 | Chochilar | 졸다 |

| | | |
|---|---|---|
| 13 | Corcunda | 꼽추 |
| 14 | Dengo | 어리광, 애교 |
| 15 | Fubá | 옥수수가루 |
| 16 | Gibi | 만화잡지 |
| 17 | Macaco | 원숭이 |
| 18 | Maconha | 대마초 |
| 19 | Macumba | 주술 |
| 20 | Marimbondo | 말벌 |
| 21 | Miçanga | 유리구슬 |
| 22 | Molambo | 천 조각 |
| 23 | Moleque | 소년 |
| 24 | Moringa | 호리병 |
| 25 | Quilombo | 도망친 흑인의 은둔지 |
| 26 | Quitanda | 과일, 채소 등을 파는 가게 |
| 27 | Quitute | 좋은 음식 |
| 28 | Senzala | 노예 거주지 |
| 29 | Tanga | 줄인 옷, 여자 수영복 |
| 30 | Xingar | 욕하다 |

(표2) 2부류: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어휘로 대중적인 동의어가 존재하는 부류(9개 어휘)

| | 어휘 | 현재 사용되는 의미 |
|---|---|---|
| 1 | Bamba | 뛰어난, 능숙한 |
| 2 | Bambambã |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 |
| 3 | Banguela | 이 빠진 |
| 4 | Cafuné | 손가락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동 |
| 5 | Catimba/catimbeiro | 꾀, 교활 |
| 6 | Catinga | 악취 |
| 7 | Mandinga | 주술 |
| 8 | Muamba | 밀거래 |
| 9 | Muxoxo | 한심해 하며 혀를 차는 행동 |

(표3) 3부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어휘 부류(17개 어휘)

| | 어휘 | 현재 사용되는 의미 |
|---|---|---|
| 1 | Angu | 혼돈 |
| 2 | Babaca | 바보 |
| 3 | Babau | 끝이다! |
| 4 | Biboca | 좋지 않은 장소 |
| 5 | Bunda | 엉덩이 |
| 6 | Cafofo | 은신처 |
| 7 | Cafundó | 아주 먼 곳 |
| 8 | Cambada | 패거리 |
| 9 | Cucuia | 실패, 끝났다! |
| 10 | Muquifo | 더럽고 비좁은 공간, biboca의 동의어 |
| 11 | Muquirana | 구두쇠 |
| 12 | Muvuca | 혼돈, 뒤섞인 물건 또는 사람 |
| 13 | Muxiba | 처진 피부, 야윈 몸 |
| 14 | Quizumba | 난장판, 혼란 |
| 15 | Sacana | 철면피, 악질 |
| 16 | Ziquizira | 불운, 병명을 모르는 병 |
| 17 | Zumbi | 귀신, 고통 받는 영혼, 잠이 모자란 사람 |

## 2. 각 부류의 어휘에 대한 19세기와 20세기 자료의 비교

19세기 자료는 Macedo Soares(1954)와 Beaupaire-Rohan(1956)에 나오는 어휘에 근거한 것으로 각 부류에 해당되는 어휘는 현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 경우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20세기 자료의 근거로 삼고 있는 Mendonça(1933)와 Raimundo(1933)는 대체적으로 세 부류에 맞춰 어휘를 정리하였으며 이것 역시 현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 경우와 현재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4] 그리고 어원에 대한 근거는 Macedo Soares(1954)와 Beaupaire-

Rohan(1956)에 있으나 이에 대한 논쟁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때로는 어원의 저자를 알 수 없기도 한 점을 미리 밝혀둔다.

### 1) 1부류에 해당되는 어휘목록

① Abadá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② Banzo - BR은 동사 banzar만을 기록하여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로 인해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로 정의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MS는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에 빠지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여 흑인들의 노예생활과 연관 지어 '브라질로 잡혀온 흑인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에 빠지다'로 표현한다. MS는 banzo를 '힘 빠진, 슬픔' 등의 뜻이 있다고 하며 파생단어 banzeiro는 '이유 없는 깊은 슬픔'을 의미한다. MS, BR 모두 분두어[5]의 cu-banza를 유래로 꼽는다. M에 따르면 '부락'이라는 뜻의 킴분두어 mbanza로 부터 유래하여 현재 사용되는 뜻인 '부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③ Caçamba - MS, BR 모두 '어떤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줄에 묶인 양동이'로 정의하고, 각별한 사이인 두 사람을 일컬어 '바늘 가는데 실 따라 간다'라는 의미로 '줄이 가는 곳으로 caçamba가 간다(Aonde vai a corda vai a caçamba)'라는 표현을 사용하듯, '바늘과 실'이라는 의미로 'caçamba e corda'라는 대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MS는 이 외에도 '일반

---

4) 이후 네 저자의 자료를 편의상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Macedo Soares(1954): MS
Beaupaire-Rohan(1956): BR
Mendonça(1933): M
Raimundo(1933): R

5) 앙골라 흑인들의 언어로 킴분두어(quimbundo)와 같은 의미이다. II장에서 언급했듯 19세기 자료인 MS와 BR에서는 킴분두어(quimbundo)라는 용어 대신 분두어(bundo, bunda)를 주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앙골라 흑인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도 분두(bundo)이다.

적인 양동이'라는 의미와 '임대용 자동차'를 일컫는 젊은이들의 속어도 기록했지만 첫 의미만이 남아있다. R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퍼낼 때 사용되는 줄에 묶인 양동이'의 의미이며, 은유적으로 '동지, 친구'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어원은 '큰 바구니'라는 뜻의 kisambu라고 한다. 현재도 '그릇, 용기'라는 뜻은 남아있다.

④ Cachaça - MS와 BR은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른 형태를 일컫는다. BR에 따르면 '꿀이 첨가된 술'이라는 뜻으로, 현재의 의미인 '사탕수수 증류주'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바이아주나 다른 북부 지역에서는 '사탕수수 액을 처음 끓였을 때 생기는 거품'을 일컫는다. 한편 MS는 '사탕수수를 끓였을 때 생기는 불순물을 포함한 거품'이라고 한다. MS와 BR는 또 다른 의미로 '각별한 열정'과 '주정뱅이'라는 의미가 있음도 언급한다. 파생단어로 cachaceira '술을 담는 곳'이 있다. 반면 M은 19세기와는 달리 '증류주'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다. 어원은 단지 아프리카 용어라고만 밝히고 있다.

⑤ Cachimbo - MS는 분두어 quixima에서 유래한 것으로 '담배를 피기 위한 기구'를 뜻한다. M과 R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이다. M은 킴분두어로 '구멍 난 우물, 속이 빈 무엇'이라는 뜻의 kixima를 어원으로 기록하였고, R은 아프리카를 떠난 흑인들이 만든 단어로 접두사 ka +조개이름 tchimbu(njimbu)의 어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학자들이 소개한 어원을 보면, 모잠비크에선 야자껍데기로 만든 방울을 chi-imbo라 부르며, 그의 축소형이 ka-chi-imbo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원일 수도 있다.

⑥ Caçula - MS와 BR 모두 이 단어의 뜻을 '가장 어린 아들 혹은 딸'로 규정하며, 어원으로는 분두어로 '가족 중 가장 어린 사람'을 뜻하는 cazulê에서 유래한다고 전한다. MS는 더 나아가 caçula와 그의 변이형

caçulê 외에도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caçulo라는 남성형도 기록하였다. 게다가 caçula와 어원이 같은 cuçula가 '빻다, 으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옥수수를 절구에 빻는 행위'라는 의미도 더불어 기록하고 있다. 한편 M과 R은 모두 '가장 어린 자녀'와 '옥수수를 절구에 빻는 행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M에 따르면, 첫 번째 의미는 킴분두어로 '가족의 마지막 사람'인 kazuli에서 유래하였고, 두 번째 의미는 '빻다'라는 kuçul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⑦ Candango - MS는 '흑인이 포르투갈인을 칭하는 이름'이라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분두어 어원임을 밝히고 있다. M은 '흑인들이 포르투갈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의미로 킴분두어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Jinga 왕국에서는 포르투갈인들이 kangundu라고 불렸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⑧ Canga - MS는 '소의 목을 묶을 때 사용하는 멍에'의 의미로, '묶다, 동여매다'라는 의미인 콩고어 cu-cang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더불어 '상파울루 지방에 있는 갈색 점토질의 광물'이라는 다른 의미도 있다. 한편 M은 '가축의 목에 거는 나무 도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어원은 '묶다, 연결하다' 의미의 킴분두어 kanga에서 왔다고 한다. M은 이 말이 페르남부쿠주와 알라고아스주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단어인 cogote('목'의 의미로 cangote에서 변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⑨ Capanga - MS와 BR 모두 두 가지 의미를 지칭한다. 첫째, '항시 무기를 소지한 용감한 자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경호를 맡는 사람', 둘째, '필수용품을 넣기 위해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작은 가방'이다. 두 번째 뜻과 관련하여, M은 뚜삐과라니어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고 B는 동의어로 mocó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R은 첫째, '경호원, 흉기사용

자', 둘째,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작은 가방이나 주머니로 여행자들이 팔이나 어깨에 매는 것'으로 mocó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두 가지 뜻 모두 킴분두어 kapanga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호원들이 보편적으로 몽둥이나 무기 가방을 팔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이 두 가지의 뜻이 모두 사용된다.

⑩ Carimbo - MS는 '표시'라는 의미로 같은 뜻의 분두어 quirimb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M과 R은 모두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표시'라는 뜻을 기록한다. M은 킴분두어의 축소형 접두사 ka에 '표시'라는 뜻의 rimbu를 합성한 것이라 주장한다. R은 '표시'라는 의미 외에 '속이 빈 나무에 양이나 동물의 가죽을 씌워 만든 북'이라는 의미도 첨가하였는데 이 의미는 현재 도태되었다. 어원은 킴분두어로 '표시'의 의미를 갖는 kirimbu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⑪ Caxumba - MS, BR 모두 '목에 생기는 병'이라고 밝히지만, 병의 종류에서는 이견이 있다. MS는 이 단어의 어원이 분두어라고 주장하며, '편도선염(amidalite)'을 일컫는다고 하나 BR은 '유행성이하선염(parotidite)'이라고 한다. 하지만 M과 R은 모두 '이하선의 염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M은 어원을 킴분두어라고 추정하고 있다.

⑫ Chochilar - MS와 BR 모두 '졸다' (B는 cuchilar라고 기록)라는 의미라 하였고 파생어로 '조는 행위' cochilo도 기록하였다. 또한 MS는 '부주의'라는 의미도 첨가한다. 아프리카 기원의 cucoxila를 어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M과 R 역시 '졸려서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의미엔 일치하나 어원은 다르게 보고 있다. M은 킴분두어 koxila '졸다'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R에 따르면, 벵갈어 방언 '춤추다'의 de (o)kutchila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졸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 마치 춤추는 것과 흡사하다 해서 생긴 것으로 본다.

⑬ Corcunda - MS는 corcunda 또는 carcunda가 모두 '등'의 의미를 가진 분두어 ca-cunda에서 유래한 것으로 '혹'을 뜻하는 corcova와 유사한 변형으로 본다. 또한 오늘날엔 알려지지 않은 '포르투갈 사람을 일컫는 한정어'로도 사용되었다. 한편 M과 R은 모두 carcunda라는 형태로 기록하였는데, 의미는 '곱추, 등에 혹이 난 사람'으로 동일하다. M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cacunda는 킴분두어 ka +'등'의 의미인 ricund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고, R 역시 rikunda의 축소형인 karicunda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⑭ Dengo - MS에 따르면, '교태, 애교'의 의미인 dengue의 변이형으로 '애교있는 사람'을 뜻하는 mendengue라는 파생어가 있다. 분두어 ndengo에서 기원했으며, '작은'이라는 의미로 '소년'을 칭하는 친근한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한편 M과 R에서는 dengo와 dengue 두 형태가 모두 기록되었는데, 첫째, '아이를 부르는 다정한 말', 둘째, '여성스러운 행동, 애교, 투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원에 대해 M과 R은 '소년'이라는 의미의 킴분두어 ndengue에서 유래하여 어두의 비음이 탈락된 것으로 설명한다. 파생어로 dongo, ndengue, ndongo가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⑮ Fubá - BR은 이 단어의 뜻을 '옥수수가루 또는 쌀가루'로 주장하는 반면, MS는 '옥수수가루'로 한정하지만, 타 곡물에서도 fubá de arroz(쌀가루)와 같은 형태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fazer tudo em fubá 라고 하면, 은유적 표현으로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한편 M과 R은 모두 '수수가루, 만죠까가루, 쌀가루'라는 뜻으로 기록한다. 어원은 킴분두어로 마지막 음절에 강세 표시가 없는 fuba '가루'에서 유래한다고 기록한다.

⑯ Gibi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⑰ Macaco - MS와 BR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숭이의 종류'와 '무게를 재는 도구(작은 기중기)'라고 말한다. BR은 오늘 날 알려지지 않은 뜻도 포함하였는데, '한 층에 단 두 장의 벽돌을 사용하여 쌓는 기둥'이다. 어원은 '원숭이', '꾀가 많은 사람', '못생기고 웃긴 사람', '나무의 한 종류', '딱정벌레' 등을 의미하는 분두어 macacu이다. 마지막 두 의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macaco가 M, 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⑱ Maconha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MS와 BR은 같은 의미인 liamba와 pango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⑲ Macumba - MS, B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신 candomblé라는 어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M에서는 '주술, 칸돔블레'의 의미로 아프리카 용어라고만 전하고 있으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한다. 현재는 '주술, 마술, 제물'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 종교의식의 형태를 지칭한다.

⑳ Marimbondo - MS는 '말벌의 한 종류'라는 뜻으로 분두어 marimbundu에서 유래한다고 기록한다. BR은 분두어에서 maribondo, maribundo, malibundo가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한다. MS에 따르면 파생어로 marimbondada가 있는데 의미는 '말벌의 쏘기', 또 다른 뜻으로는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준비물들과 함께 뽑아놓은 고기 요리'라는 의미도 있다. 한편 M과 R은  킴분두어 기원으로 복수 접두사 ma + rimbondo 형태로 '곤충, 말벌'의 의미라고 기록하고 있다.

㉑ Miçanga - MS는 분두어 missanga에서 유래한 '유리구슬'의 뜻으로, M과 R도 '유리구슬, 저가의 보석'으로 기록하고 있다. M은 접두사 mi + sanga에서 유래한다고 기록하고, R은 usanga의 복수인 misanga에서 유래한다고 전한다.

㉒ Molambo - MS는 '낡은 옷, 누더기'라는 의미의 분두어에서 유래한

다고 전한다. M과 R 역시 현재 사용되는 뜻과 같은 '날은 옷, 낡은 천조각 가리'로 기록한다. 킴분두어 mulambu에서 유래했다고 전하는데, 그 뜻은 '흑인들이 다리사이에 끼는 천'이다. 현재는 '성격이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도 사용된다.

㉓ Moleque - MS와 BR 모두 '어린이, 젊은이, 노예 또는 흑인'라는 의미로 분두어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B에 의하면, 노예제도 시절에 이 표현을 흑인들에게 쓰는 것은 무례했었으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MS는 '장난꾸러기'의 의미도 첨가하였다. 이 표현은 주로 흑인 또는 노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늘날엔 넓은 의미로 '어린이'나 '어린아이처럼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B는 또한 '금가루에서 쇳가루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자석'이라는 뜻도 기록하고 있다. 한편 M과 R은 모두 '젊은 흑인'으로 기록하며, 킴분두어 혹은 앙골라어로 '소년'이라는 의미인 muleque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합성어로는 pé-de-moleque '길고 납작한 케잌'등을 기록하였다. R은 더 나아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사기꾼' 등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한다.

㉔ Moringa - BR은 '물을 담는 흙으로 만든 병'의 의미로 moringue라는 변이형도 제시하였다. 한편 R에 의하면, '목이 길고 불룩한 물병'의 의미로 moringa/muringa는 '병'이라는 뜻의 쉬늉기어(chinhungue)[6] muringa에서 유래하고, moringue/muringue는 킴분두어 muringi에서 유래하는데 모두 같은 의미의 어휘이다.

㉕ Quilombo - MS와 BR 모두 '도망친 노예들의 은둔지'의 의미로 기록하고 BR은 더불어 '야영'이라는 의미의 분두어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M과 R은 '도망친 흑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정의하고, 어원으

6) 모잠비크에서 사용되는 반투어 중 하나로 CiNyungue 혹은 xi-nyungue라고도 쓴다.

로는 '마을'을 뜻하는 킴분두어 kilombo를 꼽는다. MS, BR, M, R 모두 동의어로 mocambo가 있으며, 'quilombo에 도망친 노예'를 일컫는 quilombola라는 파생어도 전한다.

㉖ Quitanda - MS과 BR은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을 파는 시장'의 의미로 기록하고, 어원은 분두어로 보고 있다. 특히 B는 '직업, 직장'이라는 의미도 포함시켰고, MS는 '노점 혹은 노점에서 팔리는 물건'이라는 뜻도 부여하였다. 스와힐리어로는 '침대, 침구'라는 뜻이 있다고도 밝힌다. 또한 파생어 중 하나인 quitandeira는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교양 없는 여자'이다. 한편 M과 R은 '채소, 과일 등을 파는 상점'으로 기록하고, 어원으로는 킴분두어로 '시장'이라는 의미인 kitanda를 꼽는다.

㉗ Quitute - MS와 BR에서는 '맛있는 음식'이란 의미이다. B에 따르면, 여기서 파생한 단어 quituteiro가 있는데 그 뜻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소질 있는 사람'이다. M과 R 역시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기록한다. M은 킴분두어로 '소화불량' 이라는 뜻인 kitútu에서 유래했다고 전하는데, 그 이유는 맛있는 음식일수록 많이 먹게 되어 소화불량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한편 R은 정확한 어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훌륭한, 대단한'이라는 뜻의 킴분두어 kututu가 어원일 것이라 추측한다.

㉘ Senzala - MS와 BR 모두 '노예들의 거주지'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M과 R은 '농장에 있는 노예들의 거처'라는 뜻으로 기록하였다. 어원은 킴분두어로 '거주지'라는 뜻의 sanzala를 꼽는데 일치한다. R은 여기에 덧붙여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속어로 '창녀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㉙ Tanga - MS와 BR은 '브라질에 갓 도착한 흑인노예들에게 옷으로 사용했던 시트크기의 커다란 천 조각'으로 기록하고, '천' 이라는 뜻의 분두어 ntanga, tang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한편 M은 '생식기를 가리는

천'으로, R은 '허리에 걸치는 천'으로 기록하고, 어원은 MS, BR과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두 저자 모두 estar na tanga라는 표현을 언급하는데 뜻은 '가난에 시달리다'이다. 즉 원래 '아프리카 노예의 옷'이라는 의미에서 현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축소된 사이즈의 옷'이라는 뜻으로, tanga는 인디오들이 입던 옷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아주 작은 크기의 여성 수영복'을 의미한다.

㉚ Xingar - '말로 모욕하다'의 의미로, MS는 같은 뜻의 분두어 cuxinga, cuxinghila를 어원으로, BR은 cu-rit'xinga를 어원으로 꼽는다. M과 R 역시 '말로 모욕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로 킴분두어 ku-xinga 혹은 xinga에서 기원한 어휘로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9세기와 20세기 자료에 나타난 대다수의 어휘는 현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자료의 의미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전문성으로 인한 변화 또는 여러 뜻 중 몇몇이 없어진 경우)인 경우도 발견된다. 19세기 자료에서는 caçamba, cachcaça, candango, corcunda, macado, marimbondo, moleque, tanga 등이 관찰되고, 20세기 자료에서는 caçamba, candango, carimbo가 이에 해당한다.

### 2) 2부류에 해당되는 어휘목록

① Bamba - MS, B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R에서는 '강한, 용감한'의 의미로 킴분두어로 '뛰어난, 탁월한'의 의미인 mbamba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② Bambambã - MS, B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R에서는 '가장 강한, 존경받는, 용감한'의 의미로 어원은 '매우 뛰어난'의 의미인

mbamba- mbamba이다.

③ Banguela - MS, B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M과 R은 모두 '벵겔라[7] 지역 주민의 이름' 혹은 '이가 빠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한다. R은 덧붙여 '이가 빠진 것처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어원은 '이를 심하게 갈아내는 풍습이 있었던 벵겔라 주민의 명칭'인 benguela 혹은 banguela이며 이로부터 '이가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생겨난 것이다.

④ Cafuné - MS와 BR 모두 '마치 머리에 이를 잡듯이 쓰다듬어주는 행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MS는 분두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M과 R은 모두 '엄지손가락으로 정수리를 쳐주는 행동'이라 설명하고, 여기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뜻인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주는 행동'이 유래하였다. M은 '파다'라는 뜻의 킴분두어 kufundu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는데 반해, R은 두 가지의 어원을 주장하는데, 콩고에서 사용되던 일반어인 키콩고어로 '때리기'란 뜻의 nkafuna 혹은 쉬늉기어로 '원하다, 사랑하다'의 의미인 ku-fun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⑤ Catimba/catimbeiro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⑥ Catinga - MS와 BR은 상이한 두 가지 뜻을 기록하고 있다. 첫째는 '몸에서, 특히 흑인의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로 뚜삐어(tupi) catinga에서 유래했다. B도 역시 악취와 관련하여 catinga-de-mulata와 같이 아니스 향이 나는 식물을 일컫는다 하였다. 현재는 '악취'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특별한 인종, 즉 흑인들만의 악취를 뜻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숲'을 일컫는다. 한편 '구두쇠'의 은유적 표현으로 catinga를 사용하는데, MS는 두 번째 뜻과 관련이 있는 '초라한 숲'의 의미에서 파생했다고 하는 반면, BR은 첫 번째 뜻과 관련이 있어 '악취가 나는 사람

7) 앙골라 서부에 있는 주로 수도의 이름도 벵겔라(Benguela)이다.

만큼이나 사람을 멀리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M에 따르면, 뜻은 '악취'인데 어원에 대한 주장은 뚜삐어와 아프리카어 두 가지로 분분하다.

⑦ Mandinga - MS는 첫째, '몸을 보호하는 기술', 둘째, '주술', 셋째, '뜻밖에 어려움, 인위적인 장애물'이라는 여러 의미로 기록하였다. 현재는 '주술'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지속되고 있다. M과 R도 '주술, 마술'이라는 의미와 함께 저명한 주술사가 있었던 기네(Guiné)의 Mandinga지역으로부터 유래한 어휘로 보고 있다. M은 주술의 한 종류인 '몸을 보호하는 부적'라는 뜻도 기록하였다.

⑧ Muamba - MS와 BR 모두 '사기, 고의적으로 속이기'라는 뜻으로 기록한다. 과거에 '공금횡령'을 표현하기위해 생긴 신조어였는데 훗날 '사기나 속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일컫게 되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뜻은 '밀수품'이다. MS는 분두어로 '작은 가방'이라는 뜻의 muamba가 동음이의어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인디오어 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B는 muambeiro라는 파생어를 소개하며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한편 20세기 자료에서는 '불법행위'라는 의미로, 어원은 킴분두어로 '짐을 옮기는 데에 사용하는 바구니'의 의미인 muhamba라고 기록하고 있다.

⑨ Muxoxo - MS와 BR 모두 '불만, 멸시를 표현하기 위해 입술을 떼며 입으로 하는 동작'이라고 기록한다. MS에 따르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의 분두어 muxiôxo에서 유래했다. M과 R에서는 모두 '짜증이나 멸시의 표현으로 혀를 차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의미의 킴분두어 muxoxu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19세기 자료의 cafuné, muxoxo는

현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catinga, mandinga, muamba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20세기 자료에 나타난 대다수의 어휘 bamba, bambambã, banguela, cafuné, catinga, mandinga, muamba, muxoxo의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3부류에 해당되는 어휘목록

① Angu - MS와 BR은 모두 '일종의 음식'으로 규명한다. MS는 또한 현재 사용되는 뜻과 같은 '혼돈'이라는 의미도 첨가하였다. B는 유사하게 '혼돈이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anguzada 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한편 M과 R 역시 모두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R만이 은유적으로 '복잡하게 뒤엉킨 혼돈, 시비'라는 의미를 기록하였다.

② Babaca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Babau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Biboca - MS와 BR은 '구멍, 물로 인해 파인 곳'이라 기록하며, BR는 예를 들어 땅에 있는 biboca는 교통을 어렵게 한다는 보충 설명도 하고 있다. 더불어 '울퉁불퉁하여 교통이 어려운 땅'이라고도 한다. 또한 MS와 BR 모두 '짚으로 만든 집'이라는 뜻도 언급하는데, 이는 현재 뜻인 '이상한 곳에 위치한 살기 안 좋은 집'의 근거가 된다. 한편 M, 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⑤ Bunda - MS만이 '엉덩이'라는 뜻을 언급한다. 또한 '매를 맞는 부위'라고도 하는데, 어원이 분두어로 '때리다'라는 의미인 cu-bunda 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에서는 수준이 낮은 단어로 여겨지지만, 브라질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어휘이다. 한편 M과 R은 모두 '엉덩이'라는 뜻으로 보고 킴분두어로 같은 의미인 mbunda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현재까

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⑥ Cafofo - MS에 따르면 '공동화장실'이라는 의미로 cafundó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M, 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⑦ Cafundó - MS, BR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도달하기 힘든 곳'이라 하는데 이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cafundó do judas라는 표현의 의미에 상응한다. R에 의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이라는 뜻으로 킴분두어 ka-nfundo에서 유래한다. 오늘날 상파울루주 Sorocaba시의 흑인 공동체가 살고 있는 구(區)의 지명으로도 사용된다.

⑧ Cambada - MS, B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과 R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설명한다. R이 '아무 집단'으로 의미를 확장한데 반해 M은 '건달 집단, 패거리'라는 의미로 한정하였다. 어원은 킴분두어로 '동료'를 의미하는 kamba에 접미사 -ada를 접목하여 생긴 단어이다.

⑨ Cucuia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⑩ Muquifo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⑪ Muquirana - MS와 BR 모두 현재 사용되지 않는 의미인 '몸에 딱 달라붙는 이(piolho)'와 현재 사용되는 의미인 '구두쇠'를 함께 기록하였다. M, 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⑫ Muvuca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⑬ Muxiba - MS, BR, M, R 모두 의미와 어원에 의견이 일치한다. '처진 피부, 야윈 몸'이라는 뜻으로 어원은 '동맥, 정맥'이라는 뜻의 킴분두어 muxiba에서 유래한다.

⑭ Quizumba - MS는 '청년무리'라는 뜻으로 변이형 quizomba도 언급하며 어원은 분두어라고만 하고 있다. 현재는 '혼란, 난장판'의 의미로 사

용된다. M, 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⑮ Sacana - MS는 '짝짓다, 성관계하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현재는 '철면피, 악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분두어일 확률이 높은 cu-socana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M, R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⑯ Ziquizira - MS, BR, M, R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⑰ Zumbi - MS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다른 세상의 영혼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 또한 대중적인 의미로 '한 지역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전한다. B는 더 좁은 의미로 '밤에 집안을 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사람들은 이 귀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어둠 속에선 항상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은유적으로 '밤에만 외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현재는 '다른 세상의 영혼', '귀신', '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분두어라고 하였다. 한편 R은 위와 유사하게 '밤시간에 집안을 돌아다니는 귀신', '밤에 외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기록한 것 외에 '쓸쓸하고 우울한 곳'이라는 의미도 첨가하였다. 어원으로는 킴분두어로 '귀신, 유령'의 뜻을 가지고 있는 킴분두어 nzumbi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19세기 자료의 angu, bunda, cafundó, muxiba는 현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biboca, cafofo, muquirana, quizumba, sacana, zumbi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20세기 자료에 나타난 angu, bunda, cafundó, cambada, muxiba, zumbi 등 6개의 어휘는 오늘날까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Ⅳ. 아프리카어에서 유래한 어휘의 특징

### 1. 1부류의 어휘

1부류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어휘는 19세기 초기부터 브라질레이리즘(brasileirismo)을 띠고 기록되었다. 어휘의 형태나 의미는 브라질에서 보존되었거나 다시 형성되었는데, 오랜 사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보더라도 대다수에서 그 의미가 동일하게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어들은 합성되고 파생되는 어휘 형성과정을 보이면서 브라질식 어휘로 완전하게 통합되었다. 예를 들면, xingar(욕하다)에서 xingamento(욕하기), xingação(욕하기), xingador(욕쟁이), xingatório(욕하는)와 같은 파생어가 창출되었다(Borba, 2002).

어휘사용 측면에서 볼 때, 1부류의 어휘들은 해당 대상물을 일컫는 최초의 표현이었고 유일한 표현이었기에 제한적인 사용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용 상황을 보이고 있다. caçula, caxumba, cochilar, corcunda, fubá, macaco, moleque, marimbondo, quilombo, quitanda, senzala, tanga, xingar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quilombo는 mocambo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흑인 노예들의 은신처'라는 뜻이 공통으로 남아있다. 그 의미는 확장되어 아직까지도 도심이나 농촌지역에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19세기의 두 자료 모두에 등장하지만, 흥미롭게도 20세기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어휘 macaco가 있는데, 왜 중간에 기록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어원에 대하여는 M이 분두어 macacu라고 언급한데 반해 Castro(2001)는 같은 의미인 키콩고어 makaaku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사용된 아프리카 어휘 중 19, 20세기 연구에 등장하지 않

은 단어는 abadá와 gibi뿐이다. 그중 abadá와 관련하여 Castro(2001)는 '말리 흑인이 야간 기도시간에 착용하는 흰색의 의복', '아랍식 남성 외투'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데, 바이아주에서는 전통적으로 입는 길고 헐렁한 상하의를 대신하여 카니발 때 입는 짧은 상하의 옷으로 알려져 있다. 어원은 요루바어(iorubá)[8] agbádá 일 것으로 추정한다. Aurélio와 Houaiss 모두 두 가지의 뜻, 즉 첫째, '브라질에서 이슬람교 흑인 또는 말리 흑인이 입는 의상',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인 '카니발 때 입는 편한 복장'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gibi는 Castro(2001)에 의해 최초로 기록되었으며, JIBI라는 형태로 소개되었다. 어원은 '흑인소년'이라는 뜻의 wíví에서 유래한다고 소개되었다. Gibi는 1939년도 처음 발간된 만화잡지로, 주인공은 흑인 남자아이였다. 당시 gibi의 뜻은 '(흑인)소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만화잡지의 이름이 만화 자체를 일컫는 말이 된 경우이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전인 Aurélio 사전과 Houaiss사전에도 첫째, '(흑인)소년'과 둘째, '만화잡지'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gibi라는 어휘는 파생하여 첫 번째 의미에서는 '(흑인)소년들'의 의미로 gibizada라는 어휘가 창출되었고, 두 번째 의미에서도 '만화책 보관장소'라는 의미의 gibiteca라는 파생어가 탄생하였다.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구어체에서는 '소년'이라는 뜻은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료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상이한 candango는 MS에서 처음 다뤄졌듯, '흑인이 포르투갈인을 칭하는 이름'이다. Machado Filho(1985, 18-20)에 따르면, 이 단어는 아프리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는데, 낮은

8) 요루바어는 아프리카 서부, 특히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레오아 산맥 등지에서 사용된다. 나이지리아의 공식언어는 영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루바어를 사용하며 아프리카에서 요루바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2천2백만에서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질에서도 요루바어는 아프로-브라질 의식과 같은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며 거기에서는 나고어(nagô)라고도 부른다.

계급의 유럽인이나 죄수를 일컫는 단어였다고 한다. 이것이 브라질로 유입되어 구전을 통해 포르투갈인을 멸시하는 표현이 된 것이다. 또한 1960년 1월 4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Juscelino Kubitschek가 연설에서 사용하면서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뜻은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외국인 노동자'라는 뜻이었다. 의미의 확장을 통해 사용되고 알려진 뜻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 '브라질리아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 혹은 '브라질리아의 초기 거주민들'이다. 하지만 모두 오늘날은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 되었다.

1부류의 어휘들은 caçamba나 candango처럼 현재의 의미에 아프리카 유래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어휘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어휘들을 관찰해 볼 때, 그 형태나 의미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를 통해 보면,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들이 브라질 포어의 어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 2. 2부류의 어휘

2부류에 포함된 어휘는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며 보다 대중적인 동의어 표현이 있는 부류이다. 알기 쉬운 동의어 표현으로 바꿔 써 보면, bamba는 hábil, exímio(능숙한, 뛰어난), bambambã는 especialista(전문가), o maior especialista(최고전문가), o melhor de todos(가장 나은 사람)등을 들 수 있겠다. 또 banguela는 desdentado, sem dentes(이가 빠진), cafuné는 carinho na cabeça(머리 쓰다듬기), catimba/catimbeiro는 manha, astúcia(꾀, 교활), catinga는 mau cheiro(악취)라는 쉬운 표현이 있다. 그리고 mandinga는 feitiço(주술), muamba는 contrabando(밀거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목록 중 cafuné, catinga, manginga, muxoxo와 같은 어휘는 19세기부터 기록되었다. 하지만 bamba, banguela 등의 단어는 20세기에 비

로소 등장한다. 그리고 catimba와 같은 단어는 20세기 연구에도 나타나지 않고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주로 축구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단어로 보인다.

이 부류의 어휘들은 파생어들을 창출하며 보편적인 어휘로 통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들 어휘의 동의어 표현을 통해 대체되어 쓰인다. 이렇듯 2부류의 어휘는 특성이나 행동, 태도를 언급함에 있어 수용과 변화에 민감한 중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3. 3부류의 어휘

3부류의 어휘들과 관련하여 독특한 사실이 관찰된다. 총 17개의 어휘 중 20세기 M과 R의 자료에 등장하지 않는 어휘의 수가 11개(babaca, babau, biboca, cafofo, cucuia, muquifo, muquirana, muvuca, quizumba, sacana, ziquizira)나 된다. 이중 biboca, cafofo, muquirana, quizumba, sacana는 19세기 MS와 BR의 목록에도 기록되어 있던 어휘였다.

어휘들이 20세기 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이들 단어의 유래가 아프리카어가 아니라고 여겨져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수 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사용을 중단하였거나 저자들이 단순히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 혹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계층에서만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미는 언제 형성된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한편 3부류에 등장하는 어휘 중, 19, 20세기 자료에 공히 포함되지 않는 단어가 babaca, babau, cucuia, muquifo, muvuca, ziguizira 이렇게 6개이다.

Castro(2001)는 babaca의 의미를 바이아주에서 칭하는 '여성의 성기'라고만 기록했으며, 어원은 키콩고어 mubaki와 킴분두어 mabaka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는 뜻인 '바보'라는 의미도 아프리카어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사람을 멸시할 때 혹은 욕할 때, 특히 구어체 표현에서 속어로 많은 부분 성기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Borba(2002)에 따르면, cucuia라는 용어는 ir pra cucuia 또는 ir pras cucuia라는 표현에서 '사라지다, 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실제 리우데자네이루에 존재하던 cucuia라는 공동묘지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표현은 구어체에서 사용되고 신문 등에도 쓰였다고 한다(예: "A ética foi ou não foi para cucuia?"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Alkmin & Petter(2008)에 의하면, 때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재등장하는 어휘가 있는데, 특히 정치적 언론에서 많이 발견된다. 일례로 ziquizira를 들 수 있다. 1950년 Houaiss에 의해 등장하지만, 이후 사전에서 사라졌다가 Upa Neguinho(1965)란 노래 가사에 쓰이면서 '불운'이라는 의미로 다시 Aurélio와 Houaiss에 등장한다:

| | |
|---|---|
| *Capoeira posso ensiná* | 카포에라는 가르칠 수 있고 |
| *Ziquizira posso tirá,* | 불운은 치울 수 있지만 |
| *Mas liberdade só posso esperá.* | 자유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

젊은 층의 언어라 할 수 있는 통신언어와 해당 지역의 방언, 속어 표현이 어휘 사용에 있어 변화를 불어 넣는다. 인터넷 블로그의 이름으로는 평범한 어휘보다도 이 부류의 어휘들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cafofo(은신처), muquifo(비좁은 공간), cambada(패거리) 등의 어휘가 적절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3부류의 어휘들은 활발한 역동성을 보여 끊임없이 새로운 어휘가 도입되고 도태된다.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 동안 지속적인 사용을 보이던 어휘도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는 부류라고 볼 수 있다.

## Ⅴ. 나오는 말

지금까지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가 브라질 포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세 부류, 즉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대중적인 어휘 부류를 1부류,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어휘로 대중적인 동의어가 존재하는 부류를 2부류,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어휘 부류를 3부류로 구분하여 그 어원과 의미, 그리고 파생어의 관찰을 통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된 모든 어휘는 19세기, 즉 1888년 Antônio Joaquim Macedo Soares의 '포르투갈어 브라질사전(Dicionário brasileiro da língua portuguesa)'과 1889년 Beaurepaire-Rohan의 '브라질 어휘사전(Dicionário de vocábulos brasileiros)'에 등장하였으며, 20세기에는 1933년 Renato Mendonça의 '브라질 포어에서 아프리카의 영향(A influência africana no português do Brasil)'과 Jacques Raimundo의 '포르투갈어에서의 아프로-흑인 요소(O elemento afro-negro na língua portuguesa)'에서 다뤄졌다.

이 네 작품은 출간된 당시 규모와 체계성으로 인정받았고, 다른 브라질어, 지역 방언, 아프리카니즘 연구에 빈도 높게 인용되었다. 연구에 참조된 또 다른 사전은 현대 브라질어에 대한 첫 연구라고 볼 수 있는 Borba(2002)의 '브라질 포어 사용 사전(Dicionário de usos do português do Brasil)'이다. 이와 같이 여러 작품을 비교 분석해 본 이유는 단어의 역사, 유래 등을 시대에 거쳐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

는 단어의 경우, 의미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포르투갈어에 나타나는 아프리카 어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 부류에 따라 안정성과 통합성, 그리고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수한 아프리카 어휘가 브라질 실용 포어에서 도태되었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어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노예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브라질에서 흑인노예들이 접한 현실을 묘사함으로써 역사의 일부를 남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를 형성하는 단어는 대다수 반투어이다. 이는 그만큼 포르투갈어와 반투어의 접촉이 오래전부터 이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더불어 아프리카 서부지역의 언어(요루바어, 폰어 등)의 영향도 중요했음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어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Alkmin, T. & Petter, M.(2008), "Palavras da África no Brasil de ontem e de hoje", In: Margarida Petter & José Luiz Florin(org.), *África no Brasil: a formação da língua portuguesa,* São Paulo: Contexto.

Beaurepaire-Rohan, Visconde de(1956[1889]), *Dicionário de vocábilos brasileiros,* 2ed, Salvador: Livraria Progresso.

Biderman, Maria Tereza Camargo(2002), "A formação e a consolidação da norma lexical e lexicográfica no português do Brasil", In: Nunes, J. H. & Petter, M. M. T.(orgs.) *História do saber lexical e constituição de um léxico brasileiro,* São Paulo: Humanitas, pp.65-82.

Bonvini, E.(2002), "Palavras de origem africana no português do Brasil: do

empréstimo à integração", In: Nunes, J. H. & Petter, M. M. T.(orgs.) *História do saber lexical e constituição de um léxico brasileiro,* São Paulo: Humanitas, pp.147-162.

Borba, Francisco S.(2002), *Dicionário de usos do português do Brasil,* São Paulo: Ática.

Bosi, Alfredo(1987), *Cultura brasileira: temas e situações,* São Paulo: Ática.

Castilho, Ataliba(1992), "O português do Brasil", In: Rodolfo Ilari, *Lingüística Românica,* São Paulo: Ática, pp.237-285.

Castro, Yeda Pessoa de(2001), *Falares africanas na Bahia (um vocabulário afro-brasileiro),* Rio de janeiro: Topbooks/Academia Brasileira de Letras.

_____(1980), *Os falares africanos na interação social do Brasil Colônia,* Salvador: UFBA.

Cunha, Celso & Cintra, Luís. F. Lindley(2001), *Nova gramática do português contemporâneo,* 3.ed, Rio de Janeiro: Nova Fronteira.

Elia, Silvio(1979), *A unidade lingüística do Brasil,* Rio de Janeiro: Padrão.

Fusaro, Karin(2001), *Gírias de todas as tribos,* São Paulo: Panda.

Guy, Gregory R.(1989), "On the nature and origins of popular Brazilian Portuguese", *Estudios sobre español de América y lingüística afroamericana,* Bogotá: Instituto Caro y Ciervo, pp.227-245.

_____(1996), "A questão da crioulização no português do Brasil", *I Encontro de Variação Lingüística do Cone Sul,* Projeto VARSUL, Porto Alegre: UFRGS.

Holm, John(1987), "Creole Influence on Popular Brazilian Português", In: Gilberto G.(ed.) *Pidgin and Creole Languag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406-429.

_____(1994), "A semicrioulização do português vernáculo do Brasil: evidência de contacto nas expressões idiomáticas", *Papia, Revista de crioulos de base ibérica*, Brasília: UnB.

Macedo Soares, A. J. de(1954[1888]), *Dicionário brasileiro da língua portuguesa*. Rio de Janeiro: MEC/INT, 2v.

_____(1943), *Estudos lexicográficos do dialeto brasileiro,* Rio de Janeiro: Imprensa Nacional.

Machado Filho, A. M(1985), *O negro e o garimpo em Minas Gerais,* Belo Horizonte: Itatiaia.

Melo, Gladstone Chaves de(1981), *A língua do Brasil,* Rio de Janeiro: Padrão.

Mendonça, Renato(1973[1933]), *A influência africana no português do Brasil,* 4ed.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_____(1936), *O português do Brasil, Origens, evolulçao, tendências,*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Naro, A. & Scherre, Marta(2007), *Origens do português brasileiro,* São Paulo: Parábola.

Nunes, J. H. & Petter, M. M. T.(orgs.)(2002), *História do saber lexical e constituição de um léxico brasileiro.* São Paulo: Humanitas.

Neves, Maria Helena de Moura(2000), *Gramática de usos do português,* São Paulo: UNESP.

Pinto Edith P.(1981), *O português do Brasil, Textos críticos e teóricos.* São Paulo: Edusp.

Raimundo, Jacques(1933), *O elemento afro-negro na língua portuguesa,* Rio de Janeiro: Renascença.

Silva Neto, Serafim da(1950), *Introdução ao estudo da língua portuguesa no Brasil,* Rio de Janeiro: Presença.

Tarallo, Fernando(1993), "Sobre a alegada origem crioula do português brasileiro: mudanças sintáticas aleatórias", In: Ian Roberto & Mary A. Kato(orgs.), *Português brasileiro: uma viagem diacrônica,* Campinas: Unicamp, pp.35-68.

Teyssier, Paul(1997), *História da língua portuguesa,* São Paulo: Martins Fontes.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15일